

# 시·도 단위 지역별 자살 사망에 관한 비교 연구

박은옥 · 현미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별 자살에 의한 사망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별 자살에 의한 사망수준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별 정신보건 정책결정이나 보건 사업기획 및 평가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1) 지역별로 자살 사망률, 표준화 사망률 및 자살에 의한 비례사망비를 파악한다. 2) 지역별로 성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과 자살에 의한 남녀 사망률비를 파악한다. 3) 지역별로 연령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3년 사망원인 통계 원시 자료 가운데, 국제사인분류에 따른 '사망원인2' 변수를 기준으로, 자살에 해당하는 코드번호 X60-X84인 자료만을 뽑아 분석하였다. 자살에 의한 사망의 지역별 비교를 위해 이용된 변수는 성, 연령, 결혼상태, 직업, 교육수준이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사망률 계산 시 연앙인구는 2003년 인구동태통계연보에 제시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연앙인구를 기준으로 하였다(통계청, 2004b). 연구 자료는 SAS 9.1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자살에 의한 연령별, 성별 사망률 및 남녀 사망률비를 구하였다.

## 3. 연구결과

지역별 자살 사망률에서 강원이 인구 십만명당 37.84로 가장 높았고, 충남 30.83, 전북 27.53, 충북 27.29, 경북 27.09, 제주 26.29, 경남 25.99, 전남 25.30, 인천 24.5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16.39, 광주 17.54, 대구 19.78, 대전 20.83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살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도 지역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자살 사망률에 차이가 크므로, 각 지역별로 인구의 연령 구조가 다른 경우 사망률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전국 인구를 표준인구로 삼아 표준화 사망률을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강원도가 인구 십만명당 34.79로 가장 높고, 충남이 28.93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제주와 인천이 각각 26.67로 세 번째였고, 울산 26.44, 충북 26.31, 전북 26.00 순으로 조사사망률의 순위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16.71, 광주 18.66, 대구 20.38이었다.

각 지역별로 총 사망자 중 자살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천이 5.84%, 울산 5.65%, 강원 5.39%, 경기 5.34%, 제주 5.1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살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지역

은 전남 2.99%, 경북 3.53%, 전북 3.88%였다.

지역별 성별 자살 사망률을 살펴보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남녀 사망률 모두 전국 남녀 자살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났고, 제주도는 남자 사망률은 39.36, 여자 사망률은 13.35로 남자의 자살 사망률이 여성에 비해,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살에 의한 남녀 사망률비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2.95로 가장 높았고, 부산 2.61, 충남 2.54, 인천 2.48 등 이들 지역에서는 남성의 자살 사망률이 여성의 자살 사망률보다 2.5배-3배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1.81이었다.

지역별로 연령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60세 이상의 자살 사망률은 십만 명당 63.33이었고, 40-59세 연령은 30.48, 20-39세의 연령은 18.68, 19세 이하 연령집단은 2.33으로 연령이 많은 집단일수록 자살 사망률이 높았다. 지역별로 연령별 사망률에 차이가 있었는데, 울산, 강원, 인천 등은 60세 연령의 사망률이 각각 인구 십만명당 100.98, 98.96, 86.75였고, 40-59세의 자살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대구(56.52), 부산(56.22), 강원(48.27), 충남(44.54), 충북(43.86), 제주(43.45)였다. 20-39세 연령의 자살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강원(27.50), 전남(25.97), 충남(25.88), 전북(25.17), 제주(23.85), 경북(23.10)이었다.

지역별 자살 사망률에서 강원이 인구 십만명당 37.84로 가장 높았고, 충남 30.83, 전북 27.53, 충북 27.29, 경북 27.09, 제주 26.29, 경남 25.99, 전남 25.30, 인천 24.5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16.39, 광주 17.54, 대구 19.78, 대전 20.83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살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도 지역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자살 사망률에 차이가 크므로, 각 지역별로 인구의 연령 구조가 다른 경우 사망률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전국 인구를 표준인구로 삼아 표준화 사망률을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강원도가 인구 십만명당 34.79로 가장 높고, 충남이 28.93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제주와 인천이 각각 26.67로 세 번째였고, 울산 26.44, 충북 26.31, 전북 26.00 순으로 조사망률의 순위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16.71, 광주 18.66, 대구 20.38이었다.

각 지역별로 총 사망자 중 자살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천이 5.84%, 울산 5.65%, 강원 5.39%, 경기 5.34%, 제주 5.1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살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 2.99%, 경북 3.53%, 전북 3.88%였다.

지역별 성별 자살 사망률을 살펴보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남녀 사망률 모두 전국 남녀 자살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났고, 제주도는 남자 사망률은 39.36, 여자 사망률은 13.35로 남자의 자살 사망률이 여성에 비해,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살에 의한 남녀 사망률비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2.95로 가장 높았고, 부산 2.61, 충남 2.54, 인천 2.48 등 이들 지역에서는 남성의 자살 사망률이 여성의 자살 사망률보다 2.5배-3배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1.81이었다.

지역별로 연령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60세 이상의 자살 사망률은 십만 명당 63.33이었고, 40-59세 연령은 30.48, 20-39세의 연령은 18.68, 19세 이하 연령집단은 2.33으로 연령이

많은 집단일수록 자살 사망률이 높았다. 지역별로 연령별 사망률에 차이가 있었는데, 울산, 강원, 인천 등은 60세 연령의 사망률이 각각 인구 십만명당 100.98, 98.96, 86.75였고, 40-59세의 자살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대구(56.52), 부산(56.22), 강원(48.27), 충남(44.54), 충북(43.86), 제주(43.45)였다. 20-39세 연령의 자살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강원(27.50), 전남(25.97), 충남(25.88), 전북(25.17), 제주(23.85), 경북(23.10)이었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시·도 단위별로 자살에 의한 사망수준을 조사하고 자살사망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별로 자살 사망 수준이나 자살자의 특성에 있어 다소 상이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자살 예방 계획 수립 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마다 자살사망수준이나 그 특성이 다른 것은 각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및 환경적인 특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이어서, 그러한 관련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향후 지역의 자살 사망수준과 관련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살 예방 대책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